

학교 독서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School Reading Instruction Policy

이 연 옥(Yeon-O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독서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모색 |
| II.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현황과 특성 | IV. 결 론 |
| 1. 중앙정부 차원의 독서교육 정책 | |
| 2. 지역 교육청 주도의 독서교육 정책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교육당국이 주도하는 독서교육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독서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의 실체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독서교육 정책 및 독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독서교육, 독서정책, 독서교육정책, 학교정책, 학교도서관, 독서교과서, 독서평가, 독서인증제

ABSTRAC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ading instruction policy and the entity of the arguments and criticism surrounding the reading instruction policy.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reading instruction policy. Moreover, I suggested for the desirable direction and alternative of the reading instruction policy and the reading instruction.

Key Words: Reading Instruction, Reading Policy, Reading Instruction Policy, Educational Policy, School Library, Reading Text, Reading Assessment, Reading Certification System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accesspt@naver.com)

• 접수일: 2006년 8월 27일 • 최초심사일: 2006년 9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9월 21일

I. 서론

최근 들어 '독서교육'이 교육계를 뒤흔드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2007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독서이력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별 입학전형에 반영하겠다는 교육부의 공표를 시발점으로 하여, 2005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매뉴얼로 이어진 교육당국의 연이은 독서교육관련 시책의 발표로 인해 학교를 비롯한 제반 교육환경이 독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선, 장래 자녀의 대학입시를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 독서교육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음의 보도를 통해 우리는 독서교육과 관련해 현재 학부모들이 느끼는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이현숙씨는 '독서'라는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지난 3월 서울시 교육청의 독서지도 매뉴얼이 나오자마자 과목별로 2권씩의 추천도서목록을 알려주고 2학기에 평가를 하겠다고 가정통신문이 날아왔다.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1학기 기말고사에는 논술형 문제가 떡하니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곧 독서이력철을 시행한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¹⁾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있어 '독서'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점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서점을 가게 되면 새롭게 목도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서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교육청 추천도서목록 코너'가 자리하고 이 코너를 중심으로 어른과 학생들이 책을 고르고 있는 모습은 서점의 새로운 풍경이다. 인터넷 서점에서도 '교육청 추천도서 기획전'을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들의 광고지에서도 '독서'는 단골 아이템으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독서교육이 실시될 모양이다. 지금껏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온 그 강도와 시간에 비해 정작 독서교육을 진작하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교육부의 관련 정책은 학교독서의 필요성을 <학교교육 운영지침>이나 <독서지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장학지침을 통해 전달하고 일선 학교의 독서교육을 장려하는 데 국한되었다.²⁾ 일반적으로 학교의 독서교육은 학교장이나 교사의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에 따라 그 유무와 정도가 결정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인 독서교육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독서는 학생 개인의 몫이었고, 학교에서의 독서는 오로지 '책을 읽어라'라는 강요와 권고적 수준

1) "날마다 조금씩 '읽는 맛' 붙여주세요." 한겨레신문, 2005. 8. 27.

2) 변우열,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독서교육," 도서관학논집, 14(1987), p.183.

에만 머물렀다. '책을 많이 읽어라!'라는 구호야말로 우리 독서교육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교육당국의 학교 독서교육에 대한 의지는 보다 활기를 띠게 된다. 6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국어과의 선택과목으로 <독서교과목>을 두는 정책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에는 학교 독서환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도서관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독서교육을 진작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가장 최근에는 <대학입학제도개선안>에 학교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와 정책을 담아내기까지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자료>와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교육당국의 독서교육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정착되지 못한 우리 학교현실을 생각해 보면, 교육당국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반가울 따름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비롯하여, 독서관련 시민단체들은 교육당국의 독서교육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그리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반기기는 커녕 반발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독서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독서 그 자체를 파행으로 치닫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에서부터 '학생들의 독서편식을 조장'하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워야 할 독서행위를 입시를 위한 시험대비로 전락'시키며 '또 하나의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자료> 발표 이후는 관련 단체들이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해 조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⁴⁾ 이와 같이 교육당국이 제시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대책은 현재 우리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며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의 독서교육 활성화 시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혼란과 비판만이 지속되는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당국이 주도하는 독서교육정책의 현황과 그 내용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독서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교육당국이 개발한 독서교육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독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독서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현재 우리나라 학교 독서교육 및 독서교육관련 시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그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해보는데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박복선, "독서 가로막는 독서 교과서," 중등우리교육(1998. 10), p.61.

4) 지난 2005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을 비롯한 16개의 독서관련 단체들이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자료를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Ⅱ.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현황

1. 중앙정부 차원의 독서교육 정책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독서교육정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6차 교육과정부터 개발되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 <독서교과목>과 관련된 시책을 비롯하여, 초중등학교의 독서교육 시범학교 지정과 독서교육 모델개발과 보급, 학교 독서환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도서관활성화 방안’, 그리고 가장 최근(2004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담긴 독서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독서교과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학교 독서교육의 실태와 최근 <대학입학제도개선안>에 드러난 독서교육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가. <독서교과목>을 통해 본 학교 독서교육의 실태와 문제

교육부의 학교 독서교육에 대한 의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1996-2000)부터이다. 교육부는 6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지침서 차원의 독서교육 진흥이 아니라 독서를 교과과정 속으로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이 아닌 범주의 책을 읽도록 권고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국어교과의 선택과목으로 <독서교과목>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당시까지 독서교육은 교과시간의 특별활동시간에나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의 하나였으며 독서는 막연한 권고사항에 그쳤으나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비록 고등학교에 한정되었지만 독서교육은 교과목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현 7차 교육과정에도 국어교과의 심화선택과목의 하나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교 독서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독서교과목 시간이 제 6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하여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다른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독서교과목은 대입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에 일선 학교에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⁵⁾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독서교과목 자체에서 비롯된다. 독서교과목을 검토해보면, 학교 독서교

5)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우열, “고등학교 「독서」교과에 관한 연구,”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49, 3(1994 가을); 박지현, 고등학교 독서교과 지도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이남식, 독서과목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조윤경, 독서교육의 실태와 독서교과 활용방안(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육의 현상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당국의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독서교과목은 “독서이론을 이해하고, 독서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글의 성격과 독서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독서하는 능력과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기르는” 것을 그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⁶⁾ 이를 위해 ‘텍스트의 구조 파악과 내용의 이해’에 주안점을 두며, 글 읽기를 통해서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능과 전략을 터득하도록 교육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텍스트에 대한 분석능력과 독해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설정은 독서교과목은 ‘국어교과목’의 연장이라는 인식과 규정, 국어교육 실천을 위한 도구로 보는 사고와 관행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최근 독서교육이 국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에 기반 하여 독해력과 분석력 향상에 치중하는 교육 관행에 대해 국어교과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⁷⁾ 그러나 현재 ‘국어교과의 심화선택과목’⁸⁾의 하나인 독서교과목은 책읽기의 체험을 유도하고, 책을 통한 진실과 감동 내면적 성찰을 체험함으로써 책읽기의 가치와 즐거움을 터득할 수 있도록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과의 연장에서 텍스트 그 자체의 이해와 분석에 치중하며, 분석의 방법과 지식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서교과목이 가진 이러한 문제점은 독서교과서의 내용 구성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현재 독서교과서는 독서의 본질, 독서의 원리, 독서의 태도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이론 부분과 장르별 사례 글 중심의 독서의 실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그러나 교과서의 본 내용을 검토하면 대부분의 독서교과서가 ‘독서의 이론과 방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독자들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독자의 배경지식은 독서의 과정

- 6)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0, pp.166-221.
 7) 다음의 글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독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은 읽기와 문학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속의 읽기나 문학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풍부한 독서경험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읽기나 문학지도는 지식이나 기능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텍스트의 내용이나 이를 매개로 한 독자의 반응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작품을 읽은 감동은 없고, 작품을 분석하는 기능이나 지식교육만 있다보니 ‘읽기교육은 있어도 문학교육은 없다’라는 말도 들린다.” (임천택, “독서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 어문학교육, 22(2000), p.427.)
 8) 현재 독서교과목은 “초중고등학교 국어교과목의 읽기영역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의 체계적 통합인 동시에 심화·발전된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9) 독서교과서의 내용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2000.)

독서의 이론		독서의 실제
독서의 본질	독서의 기능과 특성, 독서의 과정 독서의 방법, 독서의 가치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설득하는 글 읽기 친교의 글 읽기, 정서 표현의 글 읽기
독서의 원리	독서의 준비, 독해 독해과정의 인식, 독서와 학습방법	인문, 사회분야의 글 읽기, 과학, 예술 분야의 글 읽기 사전류 등의 이용, 다매체 시대의 언어자료
독서의 태도	독서동기 및 태도, 독서습관	

속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능숙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글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추리하고, 나아가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습관도 익힌다. ... 독서의 과정에 개입하는 심리적 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몇 가지의 모형이 있다. ... 상향식 모형은 독서의 과정이 문자의 기호를 해독하는 데에서 비롯되며, 글 자체가 의미구성의 원천이 된다고 보는 반면에 하향식 모형은 글의 의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독서가 시작되며, 이를 바탕으로 글을 해독한다고 보고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다.¹⁰⁾

이처럼 대부분의 독서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이론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과정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독서능력을 기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독서이론에 대한 지식은 대학의 심리학 강의 혹은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라면 흥미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¹¹⁾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독서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독서교과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²⁾

이에 더해, 독서교과목은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해 독서습관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독서교과서에서는 "독서는 생생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즐거워야 하며",¹³⁾ "독서는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나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간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¹⁴⁾는 것을 주장하기만 할 뿐 정작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체험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독서교과서에 대한 박복선의 지적은 되새겨볼만 하다.

독서교과서가 할 일은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서의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글 감동적인 글을 모아 놓은 교과서야말로 가장 훌륭한 교과서일 것이다. ... 나는 1년 동안 일주일에 두 시간씩 『독서』를 가지고 공부한 아이보다 며칠만이라도 『태백산맥』이나 『장길산』에 푹 빠져 보았던 아이가 더 나은 독서공부를 했다고 믿는다.¹⁵⁾

이처럼 현 독서교과서는 독서방법과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다 보니 현재 학생들의 흥미와

10) 심재기 등, *고등학교 독서*((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p.21.

11) 박복선, "독서 가로막는 독서 교과서," *중등우리교육* (1998. 10), p.63.

12) 현재 독서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증한 8개의 출판부에서 9권의 독서교과서가 발행되고 있다. 실제 간행되고 있는 9권의 독서교과서를 비교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교과서가 독서의 원리와 이론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조남현, 노명완, 최원식, *독서* (한샘, 1995), p.201.

14) 심재기 등 저, 앞의 책, p.32.

15) 박복선, 앞의 글, p.65.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재미없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⁶⁾ 여기다 정작 '독서의 실제' 부분에 실린 글 또한 온전한 한편의 글이 아니고 토막 난 글을 싣고 있어 실제 독서를 체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독서교과목에 내포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현 독서교과목은 독서이론과 방법에 능통한 독서이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독서교육의 목적은 독서이론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실제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하며, 이러한 독서의 체험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과 유용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 그 기본일진데 현 독서교과목은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독서교육은 학생들에게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서체험을 통해서만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가치를 깨닫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교육당국은 고등학교에서나마 교육과정안에 독서교육의 정착을 시도하였으나 독서교과목이 지닌 근원적 문제와 더불어 이들 교과목의 편법적 운용으로 말미암아 학교현장에서 독서교과목 중심의 독서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의 독서교육활성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의 독서교육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는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에서 표출되었다. 지난 2004년 10월, 교육부는 새 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학교 독서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2007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독서실적을 누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별로 입학전형에 반영하겠다는 교육부의 표명이 바로 그것이다. 대학입학제도개선안에서 제시된 독서정책의 주요골자는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학생이 대학진학에 유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학교 독서교육이 입시로 인해 파행을 겪었던 것을 교육당국은 학교 독서를 대학입시와 연계함으로써 고등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르면 독서활동 평가의 운영방향은 학생들이 읽은 책을 교과별 필독 도서 및 권장도서로 선정해 수업에 활용한 뒤 이를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평가해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2006년까지 독서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사연수를 실시하여 2007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독서이력을 기록하도록

16) 실제 독서교과서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박지현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교과서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시된 독서이론이나 독서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 또한 독서교과서를 활용한 독서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현, 고등학교 독서교과 지도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참고.

하여 이를 대학별로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최근 들어 독서가 사회적 이슈가 됨으로써 독서교육에 대한 사회적 강조와 요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독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학교 독서교육정책이 없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학교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 도입된 독서교육정책이 시행 전부터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우선은, 독서교육이 입시에 연계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높다.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요소로 독서를 강조하게 되면 독서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퇴색하고 입시를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이후 특히 입시교육에 앞장서는 학교일수록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정부의 독서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존에 책읽기가 입시에 방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외면하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독서정책을 발표한 이후 변화된 학교의 모습이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실제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오래도록 독서교육에 힘써온 교사들에 따르면, 과거에 독서교육을 홀대하던 쪽에서 오히려 최근 들어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독서를 공부의 적이라며 공공연하게 편죽을 걸던 입에서 하루아침에 독서를 공부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던 말이 나오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¹⁷⁾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는 독서교육을 입시교육과 연계함으로써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입시와 연계된 독서교육정책은 결국 입시에 종속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를 낳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게 한다. 일단, 입시를 염두에 둔 독서교육은 필연적으로 강제성을 띠게 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이러한 과정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독서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독서는 다만, 또 하나의 공부의 과정일 뿐이며, 영어, 수학 이외의 또 다른 입시과목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책을 읽은 과정에서 '저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나 '심사위원'을 만나게 되고, '문제'라는 틀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¹⁸⁾ 그리고 이와 같은 책읽기는 입시가 끝나고 나면 아예 외면되는 폐해를 낳게 할 것이다. 학생들이 입시공

17) 허병두, "학교 현장의 청소년 독서활동-청소년 독서진흥법의 방향정립을 위하여-," 청소년독서진흥법토론회자료집, 2005. 9. 15, p.4.

18) "새 대입제도 대비 독서교육 어떻게 할까? 학원 보낸다고 책 읽는 기쁨 깨달았나?" 한겨레신문 2005. 1. 31. 기사참고.

부에 매달리다 대학합격을 하고 나면 대부분 학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입시이후의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태도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독서교육이 사교육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될 수 있다. 이미 수학능력시험과 논술이 시행되면서 '독서'가 주요한 입시전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현재 독서학원, 독서교실, 논술토론 학원, 어린이 책대여 사업 등과 같은 독서관련 사교육업체들이 거대한 독서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독서를 대입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이번 대입개선안까지 가세하게 되면 독서 사교육시장의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사교육시장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다음 보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 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로 논술과 독서의 학습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발맞춰 사교육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잇 따라 내놓고 있다.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고 현재 중 1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07년부터 독서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점을 근거로 초등학생 층을 집중공략하고 있는 것. ... 독서교육 프랜차이즈 업체인 R교육 최모 이사는 3일 "입시안 발표로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돼 소규모 보습학원들로부터 업종 전환 및 가맹점 가입을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겨울방학 이전까지 가맹점과 방문지도 교사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¹⁹⁾

현재 입시시장에서 독서교육은 돈이 되는 주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달라진 대입개선안은 독서시장의 확대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독서·논술·토론이라는 이름을 단 사설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피지고 있는 상황이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독서 사교육시장이 폭 넓은 사고력을 키워야 할 독서를 요령을 익히는 학습으로 변질시켜 독서교육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미 사교육업체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대입논술의 대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독서프로그램은 책 읽기가 책 읽기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독해력 향상, 글짓기능력 훈련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⁰⁾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이번 독서교육정책은 이와 같은 독서교육의 왜곡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19) "초등생 논술·독서 과외 업체 기승" 국민일보 2004. 11. 4.

20) 이연옥,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3호 (2004. 9), p.57.

2. 지역 교육청 주도의 독서교육 정책

현재 교육부 뿐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각 교육청마다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여 학교 독서교육에 대한 권고 및 관리감독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독서교육 시범학교 운영, 교육청 주도의 독후감선발대회, 독서경시대회, 독서토론대회, 독서퀴즈대회, 독서캠프 등의 다양한 독서행사를 추진하거나, 권장도서(필독도서)목록 간행, 사이버 독서방 운영, 독서인증제 도입 등 교육청마다 비슷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학교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독서지도자료>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자료>와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학제개선안>발표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3월, 학력신장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독서교육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 자료>를 개발, 배포하였다. 이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각 학년에서 읽어야 할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 학습도서목록을 제시하고, 이들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²¹⁾ 또한 이들 학습도서에 대한 독서활동프로그램과 평가 및 결과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서활동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부록에는 다양한 독후활동을 소개하며, 독서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세부 안내와 구체적인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²²⁾

이번 <독서지도자료>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독서교육과 교과학습을 연계하려는 시도에서 개발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발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제도개선안과 연계되어 향후 학교 독서교육의 모형과 방향을 보여주는 기본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를 비롯하여 학부모,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 초등학생용 지도자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교육과정(1-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3-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한정)을 분석해 각 과목 단원별로 학습도서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교수학습 활동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고등학교용 지도자료는 7개 교과(국어·사회·도덕·영어·수학·과학·국사)에 대해 중1부터 고1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로 주제에 알맞은 참고도서와 심화도서 목록을 제시했다.

22) 서울시교육청, 초등독서지도자료, 2005.참고.

나.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부산시교육청은 컴퓨터 기반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관리하고 있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K-CBRT, Korea Computer-Based Reading Test)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은 후 컴퓨터상에서 자신의 독서활동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²³⁾ 이는 지난 2003년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대, 강원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여 2004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900권(초등학교 450권, 중학교 225권, 고교 225권)의 권장도서목록이 탑재되어 있다. 권장도서목록은 그 수준별로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용으로 나뉜다. 학생들이 이들 수준별 권장도서를 읽은 뒤에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독서활동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증단계는 책 내용에 관한 '50개 문항 중 초등학교의 경우 무작위로 던져진 10개 문항 가운데 6문항(60%)을 맞추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30문항 가운데 18문항(60%) 이상 맞추면 1단계를 통과한다.²⁴⁾ 이 문제는행식 평가를 통과한 뒤에는 2단계로 감상문 쓰기, 개요 짜기,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의 독후활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250자, 중학생은 400자, 고등학생은 500자 이상을 써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핵심단어채점(Key Word 채점)의 방식으로 평가된다.²⁵⁾ 이것을 통과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독서인증 쿠폰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인증 쿠폰은 그 급수에 따라 학교 자율에 따라 학교장상을 준다가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학생들의 독서량을 증가시키고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혁신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까지 하였다.²⁶⁾ 또한 교육부총리는 부산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전국에 제도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²⁷⁾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현재 이 시스템은 부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 교육청 주도의 독서교육 정책의 문제

앞서 살펴본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자료>와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학교

23)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원래 독서인증시스템이란 명칭으로 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국 독서인증센터이다. 이 센터는 강원대학교와 부산교육청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강원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4) 권장도서 1권당 객관식과 단답형의 50문항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문항은 4지선다형, OX형, 진위형,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10문항일 경우, 4지선다형 6문항, OX형 1문항, 진위형 1문항, 단답형은 2문항으로 구성된다.

25) 이는 해당 책의 핵심 단어를 시스템 상에 입력해 두고, 감상문에 실제 그 단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포함된 단어 개수에 따라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채점을 하는 방식이다.

26) "교육청·시 손잡은 부산은 '지금 독서 중,'" 내일신문 2005. 5. 11.

27) "부산 발 교육 혁명, 우수 교사 릴레이 공개수업," 중앙일보, 2005. 6. 13. 기사 참고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교육청 단위의 적극적인 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독서지도자료>는 교과별 독서교육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학력신장방안의 주요추진과제로 성급하게 실시함으로써 학교 독서교육의 파행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또한 독서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교 독서교육의 파행을 초래하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교육청이 주도하는 독서관련 시책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과 현재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강제적 독서를 유도하여 책읽기의 자발성을 없애고, 독서의 즐거움을 거세

독서는 모름지기 독자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 의지에 의해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 그러한 과정에서 책읽기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독서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책을 읽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의 독서정책의 기본방향은 독서의 강제화를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독서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한다는 것이 강제적 독서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독서인증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국어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재 학교성과와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독서지도자료 또한 독서활동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안내하며 향후 어떤 식으로든 성적에 반영할 것이라 한다. 독서활동을 학교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책읽기를 강제적으로 동원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은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를 하는 것'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고, '진학에 유리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사고를 유도한다. 결국 높은 점수와 진학을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독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서의 본질과 가치란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서란 감성과 지성의 통합작용으로서 독자 개개인의 차이와 경험에 따라 다양한 소화과정을 거치며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시험과 성적을 전제로 하는 독서는 결국 강제적인 독서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강제적 독서는 결국 독서의 즐거움을 거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독서의 흥미를 증진시켜 책과 더불어 생활하는 독서습관을 기르게 하며 이를 통해 평생 독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다."²⁸⁾는 교육청의 의지는 오로지 희망사항으로만 남게 될 뿐이다.

현재 교육청의 독서교육정책이 독서의 강제화를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28) 부산시교육청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소개글 중에서, 부산시교육청 독서교육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reading.busan.net>)

할 독서의 즐거움을 거세할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은 학교교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자료>는 독서운동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서관련 시민단체들은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²⁹⁾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자료가 독서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학교교육에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2) 획일적 물량적 독서를 지향하고, 외형적 결과에 집착함으로써 독서의 본질을 왜곡

현재 교육청이 주도하는 독서교육시책은 ‘무조건 많이 읽게 하자’는 데 중점을 두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하는 물량적 외형적 독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는 ‘년 간 몇 권 읽기’나 ‘독후감쓰기’와 같은 교육활동이 이러한 독서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껏 학교에서는 10월이면 이러한 물량적 외형적 독서활동을 집중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각 교육청마다 의례히 다독상 수상, 독서경시대회, 독서퀴즈대회, 독후감노트검사, 독서일기 쓰기, 독서신문발행, 연간 300권 읽기 등 책을 많이 읽게 하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관련 장학자료를 학교에 시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독서관련 숙제가 쏟아지게 된다. 그러다보니 정작 학생들에게 “10월은 책읽기 끔찍한 계절”³⁰⁾로 낙인찍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독서를 진작시키겠다는 학교와 교육청의 시책이 정작 아이들을 책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10월 뿐 아니라 연중 이와 같은 독서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 집착하는 독서교육의 관행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시교육청의 매뉴얼은 지나치게 독후활동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은 교과목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것과 아울러 이러한 자료의 활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그것도 책을 읽은 뒤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책을 읽는 과정은 보통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활동으로 나뉜다. 하지만 지금껏 독서교육에서는 독후활동이 지나치게 많이 강조되어 왔다. 독서의 전 과정을 오로지 독후활동이라는 좁은 의미로 간주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기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독후활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학교현장을 비롯하여 독서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이와 관련한 한 교사의 고민이 잘 드러난다.

29) 겨레아동문학연구회, 글쓰기교육연구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연대, 어린이도서연구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교사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아동문학학회, 한국어린이문학회회로 구성

30) 김종욱, “아이들을 책에서 멀어지게 하는 독서교육,” 초등우리교육(2005. 10), p.56.

지금 학교의 독서교육은 일관성 있는 흐름이 없다.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독후활동에 대한 갈등이다. ...어른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책을 읽고 기록을 해 놓거나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지 않는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책을 읽고 말이나 글이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화되어 그 아이의 인생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이 된다. ...흔히 초등학교 교사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기려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독서교육을 하면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다.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독서교육하는 교사들 중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 안타깝다. 책을 읽는 결과를 수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너무 열의가 넘쳐서 독서과일이 꼭 잘 정도로 독후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든다.³¹⁾

최근, 독후활동 중심의 독서교육 관행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독서현장에서 조금씩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매뉴얼은 이러한 반성과 비판에 대한 검토 없이 교과 관련 자료에 대한 독후활동을 친편일률적 방식으로 모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또한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독서활동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도 잊지 않고 있다.

책은 기꺼운 마음으로 읽을 때 책에 담긴 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다. 소화하는 몫은 개인의 몫이므로 반드시 바깥으로 표현해야 할 의무는 없다. 책에서 받은 감동은 혼자 속으로 간직할 수도 있고, 글이나 그림, 이야기, 행위로 표현할 수도 있다. 책을 읽고 스스로 받은 감동이 커야 독후활동이 자연스레, 풍성하게 펼쳐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확인과 평가를 위해 독서의 감동이 내면화되지 않았는데 독후활동을 강요하게 되면 자기표현과 실천을 위한 독후활동이라는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감동이 내면화되었다 하더라도 내키지 않는 독후활동은 감동을 오히려 줄어든게 할 수 있다.³²⁾ 그리고 이러한 강요된 독후활동에서 학생들이 책 읽는 즐거움과 재미를 얻어간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³³⁾

이처럼 독서교육을 독후활동 중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권고하는 것은 외형적 실적에 치중하는 교육관료와 교사들의 오랜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성은 학교에서 물량적 외형적 독서교육이 기획되고 시행되는 것은 '교육관료와 교사들의 편의주의와 걸치레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³⁴⁾ 이로 인해 교육당국과 관료들은 "일의 성격과 의미보다는 그 일을 성취하는

31) "특집: 학교와 독서교육 : 현장교사, 독서교육을 말한다," 초등 우리교육, 2005. 10, p.69.

32) 이송희, "서울시 교육청 발간 《초등 독서지도자료》의 문제점과 독서교육의 올바른 방향, 올바른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개토론회: 독서매뉴얼, 독서인증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독서교육의 방향 모색, 2005. 4. 27. pp.27-28.

33) 이와 같이 독후활동을 강요하는 현 독서교육 관행에 대해 아동문학평론가 이재복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독서교육이라고 하여 '난리를 피우는' 그런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보고나서 어떻게 그려라, 써라, 만들어라 그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야지요. 마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느냐 그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볼 도서관과 독서교육," 초등우리교육, 1998. 10, p.43.

34) 김종성, "애곡된 독서교육 방안들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기획회의 30(2005. 10. 5), p.37.

수단과 방법의 효과와 효율에 치중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독서기록장을 쓰게 하여 검사한다든지,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게 한다든지, 독서퀴즈대회를 연다든지 등”의 편리한 방법을 택하게 된다. 또한 “책을 읽고 내면의 성숙을 얻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것을 외형적 성과로 만들어내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며,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시행하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가 하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러한 물량적, 외형적 실적위주의 독서교육 관행으로 빚어지는 폐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3) ‘학력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독서의 목적에 대한 교육당국의 이해와 인식에서도 독서의 본질에 대한 왜곡가능성이 보인다. <독서지도자료>의 발간목적은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독서를 어떻게 이해하며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인적 자원에 의해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기초·기본 학력과 바른 인성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을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고등정신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위하여 교과교육과 연계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교육청의 중점 구현 과제인 「학력 신장」 방안에 근거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점 교육활동인 ‘독서 300 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³⁵⁾

위의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서울시교육청은 “독서능력은 학습능력”³⁶⁾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학력신장의 방편으로 독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 학력이 신장되기 때문에 독서교육을 적극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능력이 높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독서를 학력신장의 방편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와 유익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진실과 감동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인격수양을 위해서 독서를 한다. 어떠한 목적에 입각해서 독서를 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양태는 달라진다. 또한 독서를 어떤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독서교육의 방향과 색깔도 완전히 달라진다. 지나치게 학력신장을 위한 차원에서 독서교육이 강조되면 학생들의 책읽기는 성적향상을 위한 책읽기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책읽기는 또 다른 공부의

35) 서울시교육청, 앞의 자료, 발간사, p.10.

36) 위의 자료, p.8.

연장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사색과 감동, 인격수양이 끼어들 여지는 적어진다. 또한 책읽기의 기쁨과 즐거움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4) 독서인증제를 내포하거나 지향, 그 위험성에 대한 비판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독서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독서인증제를 내포하고 있거나 이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서인증제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학년 및 수준을 고려하여 독서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성취한 학생의 독서능력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독서평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독서인증제도의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전문가들에 의해 발달단계에 맞는 필독도서가 선정되고, 학생들은 선정된 도서를 평가 실시 이전에 읽어낸다. 평가는 1차 및 2차로 나누어지며, 1차 평가 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인증서를 부여받고, 1차 평가에 미달한 학생은 다시 일정 시간을 부여한 뒤 2차 평가를 실시해 다시 인증서를 부여받는다. 1차에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으로 인증서와 부상, 수행평가반영, 경시대회 참여의 기본자격 부여 등의 보상을 부여한다. 그리고 독서인증제에서 평가대상은 대부분 어휘력과 내용 이해도가 되고 있고, 또한 평가의 방법도 그 편의성과 객관성으로 인해 주로 객관식 지필평가에 의존하고 있다.³⁷⁾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경우 이 같은 독서인증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이들이 개발 배포한 <독서지도자료>에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행사의 하나로 독서인증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독서인증제의 세부 추진절차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³⁸⁾ 현재 독서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중등독서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2003년 9월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독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인 서울 고원초등학교, 부산 동주초등학교, 부산 토성초등학교, 부산 동여자중학교, 부산 동해중학교, 부산 가야고등학교,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김제 만경고등학교, 강원대학교 등에서도 독서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독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민간에서 독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리딩웰, 한국독서능력개발원, 한국독서능력평가원, 독서새물결 모임이 있다. 이들 기관 중 독서새물결모임의 경우 2004년에 한국독서능력검정시험이라는 독서인증시험을 시행하려다 교육현장을 비롯한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히 비판받은 바 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교육청과 학교의 독서인

37) 홍인선, “독서인증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서연구, 12호(2004), pp.301-302. (이러한 방법 외에도 제시된 책을 읽은 후 시험과정은 없이 독후감상문이나 도서를 소개하는 글을 올리거나 감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책을 읽은 것으로 인증하여 주는 방법도 있다.)

38) 독서인증추진팀구성-> 학습(10권)·권장(20권)도서 목록 선정->도서구입 및 독서지도>1차평가> 도달 시상 및 인증(수행평가 반영), 미달: 2차평가(독서지도강화) (서울시교육청, 앞의 자료, pp.137-139.)

증제도의 시행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독서인증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내포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부산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인증도서의 선정근거가 불명확하고, 특정도서에 한정시켜, 획일적인 책읽기 문화를 유도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³⁹⁾ 이와 더불어 독서인증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국어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학교 성적과 연계시키는 것은 책읽기의 강제성을 강화하여 자발적 독서의지를 상실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도 비판되어야 할 부분이다.⁴⁰⁾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는 것은 읽은 책에 대한 검증방식이다. 이 시스템의 검증단계는 책 내용에 대해 묻는 객관식, OX형, 진위형, 단답형의 문제는행식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과 형식이다.

-해명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대한 문항

〈문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바다가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41)

-김동인의 『감자』에 대한 문항

〈문제〉 복녀는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42)

-박상률의 『나는 아름답다』에 대한 문항

〈문제 1〉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세상을 껴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제 2〉 다음 서술을 읽고 유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결핍하면 자기 엄마 눈을 피해 내 방을 찾아온다. 처음엔 참고서를 빌려달라느니, 문학서적을 빌려달라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내 방문을 두드렸지만 언제부턴가는 그런 핑계 없이도 잘만 드나든다.

- ① 주인공의 방을 찾는 아이는 엄마를 싫어한다.
- ② 주인공에게 호감이 있다.
- ③ 주인공을 좋아하는 아이는 뻔뻔한 아이다.
- ④ 주인공은 그 아이의 방문을 싫어한다.⁴³⁾

39) 부산시교육청은 각 교육청 추천도서나 각 학교의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고 '도서선정전국교수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수준별 최종목록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추천도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40)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자세히 언급하였다.

41) "부산발 교육 혁명, 우수교사릴레이 공개수업," 중앙일보, 2005. 6. 13. 보도자료 참고.

42) 박홍진, 황인뢰, "도서관활용 수업의 실제," 도서관활용 수업 직무연수 교재(계명대학교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2005, p.90.

43) 김은규, "지원할 것인가, 망칠 것인가-독서교육지원시스템," 함께여는 국어교육, 2006 여름호 (<http://naramal.or.kr>).

현재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이와 같이 책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로 독서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기억력과 독해력에 대한 테스트에 지나지 않는다. 객관식 단답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평가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책읽기를 단편적 정보를 암기하는 식으로 해야 함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꼴이다. 이러한 암기독서를 통해서 과연 학생들이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겠으며, 책읽기의 즐거움과 가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문항으로 인증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책을 통해 감동받고 의미와 세상을 발견하는 식의 책읽기는 멈추고, 책 속의 단편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읽기를 감내하게 하는 것은 인증쿠폰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평가점수이다. 이처럼 현재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관리가 용이한 지필평가에 의존하여 책을 읽은 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고와 심리의 변화에 주목하기 보다는 책 내용에 대한 암기력을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책읽기를 기형화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독서에 대한 평가문제와 연관해서 보다 확대된 논의가 요구된다.

사실, 학생들의 독서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독서과정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꿈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독서과정은 신비스러운 정도로 복잡하고 또한 정교한”⁴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에 대한 평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이다. 과연 독서활동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독서평가가 독서의 본질을 거스르는 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독서활동을 평가한다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독서의 결과만이 아니라 독서과정, 독서의 태도나 흥미, 독서이후의 반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껏 독서평가에 대한 논의는 결과중심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선다형 시험이나 단답형을 통한 단편적 지식과 기능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독서과정에서의 독자의 반응, 그리고 독자의 태도나 흥미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독서 후의 반응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것이 분명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식이나 기능 중심으로 국어교과의 ‘읽기평가’와 동일한 선상에서 행해왔다.⁴⁵⁾ 이러한 관행과 현상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독서는 일반적으로 즐거움이나 흥미를 쌓고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자신이 원해서 읽는 행위이기에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지만, 평가를 전제로 하게 될 때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험이 주는 중압감이 큰 우리사회에서 시험을 전제로, 평가를 전제로 책을 읽게 되면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책을 읽게

이외에도 독서인증시험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인가? 강아지똥이 거름이 되어준 꽃 이름이 무엇인가? 몇 명이 나오나요?” 등 상식을 초월하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44) 송계령,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13.

45) 임천택, “독서 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방법,” 어문교육, 22집(2000), p.428.

된다. 이런 과정에서는 독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책을 읽는 것이 평가받기 위해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이루어지기에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의 자기주도성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독서평가 문제는 현재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서인증제는 기존 독서평가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미 2007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부터 독서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누가적으로 기록하여 이를 2010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책을 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개발될 독서매뉴얼에서 규정한다고 한다. 교육부가 어떤 내용을 담아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⁴⁶⁾

(5)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권장도서목록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는 부산시교육청이 선정한 권장도서목록이, 서울시교육청의 독서매뉴얼에는 단원별로 교사가 활용할 도서목록이 실려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목록은 학생들의 읽을거리를 안내해 주고, 서울시의 교과 관련 목록은 단일의 교과서 위주로 진행되는 학교수업을 보다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이들 목록의 정체를 의심한다.

먼저, 학부모들은 이들 목록을 “자녀들이 내신을 잘 받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⁴⁷⁾라고 간주한다. 2007년부터 독서기록을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과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독서활동을 수행평가 등을 통해 성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이와 같은 인식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있어 교육청목록은 “이 책을 읽지 않으면 마치 학교에서 도태되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해 인생나오자가 될”⁴⁸⁾ 것 같은 위협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때 열의에 넘친 학부모들이 관련 자료를 사재는 열풍도 일어났다고 한다.

한편, 교사들도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한다고 항변한다. 독서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로 하여금 제시된 자료에 한해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적

46)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대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반응을 고려해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용을 독서평가방안이 그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올 것 같지가 않다. 또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와 관련한 공청회결과를 보더라도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 2005년 8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생 독서이력철의 대입자료 전형 자료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 독서교육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었으나 현장에서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47) “권장도서를 버려라,” 문화일보, 2005. 4. 6.

48) 한기호, “학교도서관이 대안이다,” 함께 여는 국어교육, 2005 여름호(<http://naramal.or.kr>).

전달자로 전락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⁴⁹⁾

이에 더해, 선정된 도서의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탑재된 목록의 경우 선정근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교육청 권장도서목록과 도서선정전국교수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도서선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해놓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목록 또한 마찬가지다.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시한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고, 교육청 산하의 각 교과연구회에 맡겨 급조하여 참여교사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⁵⁰⁾ 이렇다 보니 목록의 완성도나 선정도서의 질 문제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절판된 도서’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도서’들도 발견된다.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추천된 경우’도 있으며 ‘고전에 치우쳐진 도서들이 주류를 이룬다.’⁵¹⁾

이러한 문제점들과 더불어 교육당국이 선정하는 권장도서는 권력성을 가지며, 이러한 권력을 가진 목록은 억압적이며 강제적인 독서를 유도한다는 점도 우려할 사항이다. 교육당국이 권장하는 도서는 말만 권장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필독서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해당도서의 독서활동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평가점수가 곧 입시에 반영될 것이라 하니, 학생들에게 있어 권장도서는 국영수 과목외의 또 하나의 교재요, 수험서 일뿐이다. 입시와 연계된 독서교육을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지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필독서가 되는 것이다.

한편, 권장도서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와 같은 인식은 서점 판촉전략의 좋은 도구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서울시교육청 추천도서 기획전-초등, 중등, 필독서 최고 30% 할인’⁵²⁾ 과 같이 교육당국이 정한 권장도서는 서점의 특별판매행사 대상 서적이 되고, 특별진열 서적이 되고 있으며, 서점의 매출을 좌우한다고 한다.⁵³⁾ 이렇게 되면 출판시장의 왜곡과 황폐화를 초래할 여지가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후 열린 토론회에서 한 출판인은 교육당국의 권장도서목록이 출판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그 우려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소상하게 이야기한 바 있다.

49) 박홍진, 황인뢰, 앞의 글, p.91. :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의 성명서(서울시교육청은 독서교육이란 이름 아래 참다운 독서를 저해하는 ‘독서지도자료’를 전면 철회하라!) 참고

50) 허병두, 앞의 글, p.6.

51)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균, “독서교육은 전문가인 교사와 사회에게” 올바른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개토론회자료집, 2005. 4. 27, pp.59-61. :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의 성명서(서울시교육청은 독서교육이란 이름 아래 참다운 독서를 저해하는 ‘독서지도자료’를 전면 철회하라!), 2005. 4. 27. : 한기호, “서울시교육청 선정 추천도서.” 한겨레, 2005. 4. 2. : 한기호 “학교도서관이 대안이다” 함께여는 국어교육, 2005년 여름. : 김희평, “권장도서를 버려라”, 문화일보 2005. 4. 6. : 김대경, “교과별 독서지도 매뉴얼과 학교 독서지도,” 올바른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개토론회자료집, 2005. 4. 27.

52) 서울시교육청 목록 발표 이후 한 인터넷서점에서 진행한 이벤트이다.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탑재된 권장도서 또한 부산 시내 대형서점들의 한 코너를 점하고 있어 이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53) “사교육 부추기는 독서매뉴얼,” 세계일보, 2005. 4. 25.

권력을 갖는 목록은 출판문화도 황폐화 시킬 수 있다. 아무리 객관성을 갖고 정성을 쏟아 심세하게 만든 목록이라도 출판되고 있는 모든 책을 검토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좋은 책이란 기준보다는 목록을 선정하는 이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이에 출판사들은 이러한 권력을 갖는 목록에 자신이 출판한 책을 진입시키기 위해 기관으로 또 선정하는 이에게로 줄을 서 로비를 할 것이란 것은 출판인이라면 모두가 뻔하다 말할 것이다. 현재도 상당수 출판사들은 몇몇 지명도 높은 각 기관 및 단체의 선정도서목록에 자사의 책이 선정되도록 각종 로비를 하고 있다. 상당수의 출판사들은 책의 기획방향을 선정이 가능한 책으로 맞추어 갈 것이다. 선정되지 않은 책은 학생들이 읽지 않을 것이 뻔하고 목록에서 탈락하는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출판사는 결국 학생들을 위한 책을 출판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일정 좋은 책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워 지켜온 많은 출판사들이 그 기준을 목록이란 두 글자로 바꿔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출판의 황폐화는 독자 인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다.⁵⁴⁾

이처럼 교육청 도서목록이 특정한 몇몇 책들을 선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편식을 유도하고, 그 책만 사게 함으로써 여타의 다른 책들이 다양하게 존립할 수 있는 여지를 현저하게 잠식하게 된다. 획일화된 도서선정은 출판문화의 왜곡과 기형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계는 이를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출판사는 '서울시교육청 추천도서'란 딱지를 붙이거나 추천도서관련 초록집과 요약집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⁵⁵⁾ 서점에서도 '목 좋은 자리'에 '교육청 추천도서'코너를 마련해 놓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다. 목록에 대해 교육청은 필독서나 권장도서가 아니라 참고용 도서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육청이 발표한 목록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여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Ⅲ. 독서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모색

지금까지 연구자는 교육당국의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사회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검토하였다. 지금껏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육당국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의지와 대책들이 오히려 독서교육의 파행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독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근거한 독서교육정책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 독서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학교 독서교육이

54) 박성경, “책읽기는 문화이다.” 올바른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개토론회자료집, 2005. 4. 27, p.55.

55) “사교육 부추기는 독서매뉴얼,” 세계일보, 2005. 4. 25.

지향해야 할 바를 비롯하여 독서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 독서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

우선, 교육당국이 독서의 본질과 가치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독서란 무엇이고 독서의 본질과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교육당국이 주도한 독서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비판이 가속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서의 목적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독서는 독서 그 자체가 목적이자 의미라고 여긴다. 독서는 독자의 자발성에 근거해야 하며, 책읽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독서 그 자체보다는 독서를 도구이자 수단으로 활용한다.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하여’, ‘입시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꼭 사용한다. 이러한 목적과 의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하여, 입시를 위하여 라는 목적을 천명하게 되면 결국 독서는 자발성이 사라지고 강제성을 띠게 되며, 이럴 때 책읽기는 더 이상 즐거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수사로 치장된 독서교육이야말로 강제성과 강박관념을 야기하는 책읽기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책읽기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책읽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 또한 자발성을 동반하고 즐거움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아이들이 책읽기의 체험을 통해 자유롭게 사색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독서교육에 대한 발상과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나. 독서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독서교육 방법의 모색

독서교육의 방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독서교육으로 인해 독서의 가치와 본질, 독서의 즐거움과 자발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많이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다독지상주의, 일회적 행사와 독후활동에 치중하며 이의 양적인 수치화에 급급한 가시적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독해력 신장에 기반 하는 주입식의 분석식 학습식 독서교육, 독서의 체험을 유도하고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기 보다는 독서하는 원리와 방법에 치중하는 이론적 지식적 독서교육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독서교육의 최상의 방법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읽기에 길들게 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니엘 페나크라는 프랑스 교사의 지적은 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읽기에 길들게 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마치 무슨 성벽이라도 두르듯 책에 대한 사전지식을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읽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담을 주지 말고, 읽고

난 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보태려 들지 말아야 한다. 선부른 가치판단도, 어휘 설명도, 문장 분석도, 작가에 대한 언급도 접어두어라. 요컨대 책에 관한 그 어떤 말도 삼갈 일이다.⁵⁶⁾

독서의 본질과 가치, 그 성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지나친 '교육'이 독서에는 불필요한 일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교육에서 노출되는 많은 문제는 독서라는 행위가 교육이라는 방법에 지나치게 압도당함으로써 빚어지는 것⁵⁷⁾"이라는 김종성의 분석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관행과 풍토가 독서가 가지는 자연스러움의 원리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서는 '교육'에 입각하여 아이들의 독서행위에 개입할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책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여 독서에 대한 자극과 동기유발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여,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와 취향에 맞는 책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독서체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독서 '교육'의 주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독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학교 독서교육의 전제조건, 학교도서관

앞서도 거론하였지만 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자 기본적인 방법은 학교의 기본 독서환경이라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일이다. 학교도서관은 독서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유도하고 안내하며, 아이들로 하여금 독서 체험⁵⁸⁾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해 독서환경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나칠 정도로 인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껏 수많은 독서운동과 독서캠페인, 독서관련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 읽는 시간이 세계 꼴찌 수준'⁵⁹⁾이라는 웃지 못 할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언론, 학교 등 우리 사회가 주도하는 각종 독서운동과 행사는 주로 눈에 띄는 홍보와 이벤트에 중점을 두는 일회적 운동에 그치고 독서환경조성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외면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독서교육 육성 방안도 예외가

56) 다니엘 페나크, 소설처럼, 이정임 역 (문학과지성사, 2004), p.163.

57) 김종성, 앞의 글, p.43.

58) 현재 연구자는 독서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독서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독서체험을 실천할 수 있는 주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는 이 연구작업 이후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독서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서관형 독서교육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

59) 미국의 비영리미디어 조사기관인 '엔피오(NPO) 월드' 조사결과를 보면 책과 신문 잡지를 포함한 한국인의 주당 독서시간은 3.1시간으로,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책 읽는 시간이 꼴찌 수준이란다" 한겨레 2005. 7. 1.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⁶⁰⁾’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독서교육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심을 보이는 등의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독서교육은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제를 염두에 두고 볼 때 학교도서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사실 늦은 감이 많지만 학교 독서교육 정착을 위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 따라 2005년까지 3800개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 또는 리모델링되었으며, 2006년에도 1462개 학교도서관이 설치 또는 리모델링 될 예정이다. 또한 학생 1인당 장서수도 2002년 5.5권에서 2005년 8.32권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9.2권으로 증가할 계획이라 한다.⁶¹⁾ 이처럼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 힘입어 학교도서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학교 독서환경으로 기능하는 데는 아직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실질적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서교사는 2005년 현재 412명에 불과하다⁶²⁾ 이는 전체(10818개 학교)의 3.58% 정도에 그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장서 수에 있어서도 미국의 25.9권, 일본의 20권에 비하면 크게 적은 양이다.⁶³⁾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학교 독서교육을 위한 기본 환경으로 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한 후속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서교사 전면 배치, 충실한 자료의 확충에 중점을 두는 교육당국의 정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수순이다. “책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과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책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웃은 그냥 둔 채 웃을 입을 아이의 키를 늘이거나 줄이려드는 억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시민단체운동가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⁶⁴⁾

라. 수업방식의 개선이 필요: 자료중심적, 학생중심적 수업의 지향

학교에서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 수업방식의 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실구조는 책읽기를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많다. 우리나라 교실수업은 교사의 입과 단일의 교과서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또한 입시위주의 체제아래 주입식 암기식 수업체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교재-강의-복습 시험⁶⁵⁾’의 틀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관행을

60) 이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주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장서확충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61) 한윤옥, “학교도서관의 미래-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완료 이후,”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2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2005, p.3.

6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감, 2005, 참고.

63) 오승현, 학교도서관장학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3. 김종성 “학교도서관의 현실과 과제” 기획회의 30(2005. 10. 5), p.45.에서 재인용.

64) 안찬수, “독서환경과 독서진흥,” 도서관문화 47권 6호(2006. 6), p.33.

65) 서양의 도서관전문가가 60년대의 우리나라 교실 모습을 목격하고 한 말이다. 그러나 현재도 이와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케이지 등저, “아시아 8개국의 도서관발전,” 발전도상국의 도서관 김두홍·정필

극복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책읽기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 교사와 학생이 단일의 교과서에 의존하는 수업이 아니라 주어진 학습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하는, 폭넓은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책읽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교사는 학습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안내해주고,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 조사한 뒤, 수업시간에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는 수업이야말로 학교의 책읽기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습독서’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습독서란 “교과지도 학습과 관련하여 단일 및 차시의 주제와 관련된 도서 및 독서과제를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차시학습의 배경지식이 되거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활동”⁶⁶⁾이라 규정하고 있다. 굳이 학습독서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자료를 중심에 두는, 토론과 발표가 중심이 되는 수업방식을 지향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교과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서 읽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학교의 책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닌 자료중심의,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수업방식과 교실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 더디 가도 차근차근히 가자!

교육당국이 발표한 독서교육정책을 보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성과를 보이도록 하는 교육 관료들의 조급성이 곳곳에 묻어난다.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그 대표적 예이다. 독서교육을 입시에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당국이 의도하는 내용과 방식의 독서교육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학교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입시문화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입시에 내거는 만큼 가장 빠르고 효과가 큰 것이 없다. 고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입시에 교육당국 식 독서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공교육영역 뿐 아니라 사교육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고민한다면 당연히 학생들이 독서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일부더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반면에 그 효과가 빠른 시간 안에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러다보니 교육당국은 입시에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독서를 대입에 연계시킨 것이다. 교육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대입개선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독서지도자료>발간에 있어서도 ‘3개월 만에 매뉴얼과 추천도서목록이 만들어졌다’, ‘독서이력 아이디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독서매뉴얼이 나오기까지 1년 만에 이루어졌다’⁶⁷⁾는 등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관료들의

모 역(한국도서관협회, 1970), p.54.

66) 서울시교육청, 앞의 자료, p.13.

67) “입시위한 책읽기 안된다,” 경향신문, 2005. 5. 6.

조급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독서교육정책에서 만큼은, 이러한 관행을 좀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 성과가 일시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밟아가는 양상을 띠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일부터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

IV. 결 론

지금까지 연구자는 교육당국의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독서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교육 정책 및 독서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본문에서도 거론하였듯이 현재 독서교육정책은 교사를 비롯하여 기존 독서교육을 실천해온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독서교육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교육계가 겪고 있는 중요한 혼란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의심하고 불신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⁶⁸⁾는 지적은 이번 독서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말인 듯싶다. 교육정책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초래는 결국 교육당국이 우리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독서교육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 현장을 비롯한 독서관련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판과 항의는 독서교육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요구와 고민, 지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정책형성과정에는 관련자들을 비롯한 관련단체들과 대상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정책의 순조로운 집행을 위해서도 정책집행과 관련한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독서교육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관련 정책을 무리하게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제기되는 비판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껏 방기되어 왔던 독서교육을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황급히 추진하여야 할 이유는 아무 데도 없다. 학교 독서교육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합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교육당국이 학교현장과 시민단체 등의 반응을 비롯한 사회적 비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68) 임연기, “한국 교육과정 정책 결정에서의 주요 쟁점,” 교육문제연구, 8(1993. 5.), p.45.